

企劃論文

건국과 전쟁에 의한 지역 공간의 지정학적 변화* - 해방 전후~1950년대 인천시 강화군 교동의 사례 -

김 귀 옥**

I. 머리말	IV. 구술 속에 재현된 교동 공간의 중심지
II. 한국전쟁과 지역연구, 구술사 방법론 과의 만남	이동
III. 1950년 전후 기록에 나타난 교동 지역 사회의 구조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탈바꿈되는 주원인을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설명해왔다.¹⁾ 한국에서도 전통사회가 해체되는 데 공업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공업화는 한국 사회를 근대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견인차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전통 사회의 변화를 인구학적 이동면이나 지리학적 공간 배치 면에서 볼 때,

* 이 연구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079-BS0063). 좋은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가운데 많은 도움을 준 한성대 전쟁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임하, 윤충로 선생님과 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강화군 교동 주민들의 참여와 좋은 구술에 커다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회학 전공(freeox@hansung.ac.kr).

1)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2[1997]), 294쪽.

분단과 전쟁요인을 빼놓고 고려하기 어렵다.²⁾ 1950년대 제3세계의 도시화율은 17.8%³⁾이었으나 한국은 24.5%에 달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한국에서는 인구의 탈농과 도시집중화, 그 결과 도시빈민층의 과도한 집중이 오히려 공업화를 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단과 전쟁은 사회 곳곳에 주한미군기지 또는 국군기지가 입지하도록 하였고, 전쟁에 의해 수많은 산업시설과 민간인 거주 공간을 변모시켰다. 심지어 38선과 휴전선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지역 개념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했다. 특히 평원지대가 많던 38선과 휴전선의 중·서부지역을 완전한 군사지대로 변모시키는데 분단과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사적 원인에 의해 전통적 공간은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 지역의 사회적 관계는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특히 2008년은 1948년 건국된 지 60년이 된 해인데, 건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건국은 일제 강점기 일제 총독부에 의해 기형적으로 추진된 근대화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라는 의미와 둘째, 건국은 분단의 장기적 고착화이며, 그것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근대와 전쟁이라는 이중적 코드가 하나의 선에 고착되었다. 그런데 건국과 전쟁의 문제를 거시적, 또는 정치사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할 뿐, 과연 그러한 정치사적인 문제가 생활세계(Lebenswelt) 수준 또는 미시적 지역 수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그간 사회과학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한국 학문에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연구 성과물들이 간헐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공식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 남북의 분단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나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지역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2000년대 전후가 되어서야 간혹 발표되고 있다. 이런 주제의 연구들은 대개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구술사 방법론은 지역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첫째, 최근까지 현대사의 전환기

2) 김귀옥, 「전쟁과 공간, 인간의 사회학적 만남: 속초 월남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필동·지승중(외), 『한국사회사 연구』(나남출판, 2003), 378쪽.

3) 권태환·김두섭, 앞의 책, 233쪽.

(turning point)라고 할 수 있는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지역의 변동이나 그 사회적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문헌 자료나 연구가 절대 부족했고, 이러한 실정은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지역지(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 분단국가의 비정상적 작동으로 인하여 기록 생산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그 정도는 대단히 심각하였던 데에서 연유한다. 셋째, 한국전쟁 당시 예민하게 전개된 집단학살의 문제와 월남, 월북, 군 징병·징용 등의 관계로 빚어진 사회 인구학적 변동을 담을 수 있는 기록들이 지역 수준에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한 실정이다 보니 사람들의 증언이 없는 한, 지역 사회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전쟁과 지역과의 관련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 구술사 방법론은 중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⁴⁾

한 예로 김귀옥은 1996~1997년 강원도 속초시를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이 속초의 지역적 성격과 사회관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휴전선 직하 동북단 도시인 속초는 한국전쟁 이전에만 해도 양양군에 소속된 작은 마을이었으나 한국전쟁 과정에서 속초는 군사적 요충지로 탈바꿈하였다.⁵⁾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속초는 미국 관할 하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을 거세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보급하는 실험장이 되었다는 점이다.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보면 어떨까? 2005년부터 조금씩 진행시켜온 강화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하여 분단과 전쟁이 지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심스럽게나마 밝혀나가고 있다.⁷⁾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⁸⁾을

4) Kim Gwi-Ok, “Regional Korean War and Oral History Research,”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 No. 2(2006), pp. 58~59.

5) 김귀옥, 앞의 논문(2003), 390쪽.

6) 김귀옥, 「잃어버린 또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46호(2000), 30~53쪽.

7)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71호(2006), 40~71쪽.

8)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을 조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물리적 거리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김포시로부터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강화도와 달리 교동 섬은 일출·일몰 때 까지만 배가 운항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배출인구는 많

현지 조사하고 지역민들을 면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으로 드러난 현상과 역사적 사실 또는 주민들의 삶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동⁹⁾은 일반 섬과는 다르게 어업 인구가 전무한 농업 중심 지역이다. 교동이 농업 중심 지역으로 된 것은 전통사회로서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동한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지형학적 요인의 결과인가, 또는 그 문제는 분단 또는 전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분단과 전쟁에 의해 지역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등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교동에는 조선시대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전통적 중심지가 있었으나 전쟁 이후 면소재지가 바뀌면서 중심지 이동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전통적 면소재지에는 ‘교동읍성’, 남문 등 허물어져가는 역사적 자취만이 남겨져 있을 뿐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는가를 말해 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현대에 이르러 분단과 전쟁은 교동 지역 사회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화시켰다. 강화군 교동면이라는 미시 공간에 분단과 전쟁에 의해 주변 환경에서부터 공간 구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건국으로 고착화된 분단과 전쟁은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적 성격만을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 지역의 성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강화군 교동면 지역 공간과 미시 사회의 성격은 어떤 변모를 거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면단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문서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구술사를 통하여 사라진 열쇠를 추적해 나가기로 한다.

II. 한국전쟁과 지역연구, 구술사 방법론과의 만남

1. 선행연구

국내에서 한국전쟁과 지역사회라는 주제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정근식의 「한국

으나 유입인구는 적고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38.9%(2007년 1월말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사무소 통계자료)를 차지하여 전쟁의 기억이 간직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9) 교동면은 강화군 27개 도서 중 하나이고, 남한 전체의 섬 가운데 14번째 크기의 섬이며 17개 행정리, 13개 법정리를 가지고 있다. 김귀옥, 앞의 논문(2006), 44쪽.

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¹⁰⁾이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정근식은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구술사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이 2000년대 전남대학교 호남사회연구소가 학진의 중점연구과제로 제출한 연구서들의 출발이 되었다.¹¹⁾

한국전쟁과 지역 연구, 구술사라는 세 가지 코드로 처음 만난 연구서는 미국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윤택림의 “Koreans’ stories about themselves: an ethnographic history of Hermit Pond Village in South Korea”¹²⁾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김귀옥의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비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1999)와 단행권인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1999)가 있다.

또한 2000년대에도 연구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 배출되고 있다. 박찬승의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2000),¹³⁾ 이용기의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2001) 등에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었고, 이후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의 성과물의 일부인, 표인주 등의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2003)와 김경학 등의 『전쟁과 기억』(2005)도 들 수 있다. 정근식의 「지역 정체성, 신분 투쟁, 그리고 전쟁기억」(2004)과 「한국전쟁 경험과 공동체적 기억」도 지역사 연구 일환으로 발표된 성과물이다. 그리고 강화군 교동면 지역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최태욱의 「강화군 민간인학살: 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2007),¹⁴⁾ 김귀옥의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10) 정근식, 「한국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풀빛, 1992).

11) 정근식, 「한국전쟁과 지역연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쟁과평화연구소 제1회 콜로키움 발표문, 2005(미간행).

12) Yoon, Taek-Lim, “Koreans’ stories about themselves: an ethnographic history of Hermit Pond Village in South Kore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92.

13) 박찬승은 예산지역이나 영암지역을 주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구술증언을 보조로 활용하여 연구물을 제출한 바 있다. 박찬승, 「20세기 전반 동성마을 영보의 정치사회적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2003), 127~175쪽; 박찬승, 「20세기 전반 예산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 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권 1호(2004), 233~295쪽.

14)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 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 창간호(2007).

중심으로」(2006)가 나와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1990년대까지 한국전쟁 연구의 틀과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 1990년대까지 한국전쟁 연구는 대개 정치학 분야에서 주도하면서, 거시 구조적 동학 속에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한국전쟁을 둘러싼 주제에 접근하면서,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갈등적 관계망, 지역 사회의 해체와 변화,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 과정, 학살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문들은 분단과 전쟁이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주목하였던 반면, 지역이라는 공간 그 자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이제 건국과 전쟁이라는 거시적 요인에 의해 소규모 공간이나 마을 단위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등과 같은 내밀한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글은 미시적 수준에서 건국으로 고착화된 분단과 전쟁이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시켰으며 사회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그것은 반공이데올로기 확산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2. 강화군 교동면의 인구 현황

2006년말 현재 교동의 인구는 3,233명(남 1,597명, 여 1,636명)이고, 가구수는 1,388가구로서 1가구당 평균 2.32명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1,033가구, 비농가 385가구이다. 강화군내 읍면별, 남녀별로 인구와 함께 보면, 교동 인구의 비율은 2006년 현재 전체 강화지역의 5%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적은 강화군 전체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강화군 전체에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1년도만 해도 교동인구는 강화지역 전체 인구의 17.3%¹⁵⁾에 달하여 강화 전체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다시 말해 교동 인구는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1899년의 『교동군읍지, 광무 3년 5월』에 기록된 당시 교동 호구 1,343호, 인구 5,637명(남 3,121, 여 2,516명)¹⁶⁾이고 출전에 나오듯 교동이 ‘교동군’으로 된 것은 고종

15) 김귀옥, 「한국전쟁과 강화도, 교동의 기록: 강화지역 한국전쟁 피해자 조사 실태보고서」(한성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전쟁과평화연구소, 2007), 10쪽.

16) 황인병(역음), 『교동군읍지, 광무 3년 5월(1899)』(출판사 미상, 1988), 2쪽.

32년(서기 1896년)이다.¹⁷⁾

<표 1> 2006년 강화 지역 읍면별 인구

읍 면별	가구수*	인구	남	여
단위	가구수(%)	명(%)	명(%)	명(%)
총합	25,278(100.0)	65,510(100.0)	32,631(49.8)	32,879(50.2)
강화읍	8,211(32.5)	22,708(34.7)	11,163	11,545
선원면	2,611(10.3)	7,047(10.8)	3,531	3,516
불은면	1,570(6.2)	3,974(6.1)	2,005	1,969
길상면	2,129(8.4)	5,775(8.8)	2,897	2,878
화도면	1,581(6.3)	3,999(6.1)	2,014	1,985
양도면	1,395(5.5)	3,561(5.4)	1,814	1,747
내가면	1,291(5.1)	3,039(4.6)	1,472	1,567
하점면	1,718(6.8)	4,034(6.2)	2,043	1,991
양사면	817(3.2)	1,963(3.0)	988	975
송해면	1,260(5.0)	3,249(5.0)	1,643	1,606
교동면	1,380(5.5)	3,233(4.9)	1,597	1,636
삼산면	990(3.9)	2,260(3.4)	1,137	1,123
서도면	325(1.3)	668(1.0)	327	341

자료: 통계청(2006년 말 현재) 자료.

* 가구수 출처: 강화군 기획감사실, 『제46회 강화군통계연보』(강화군청, 2006), 50쪽.

3. 교동면 현지 조사와 구술자 인적 사항

강화군 교동면 현지 조사는 2005년 전후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2006년 1월, 1차 교동 현지조사 이후 연구는 서울과 교동, 강화로 이어졌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수집 및 분석,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문헌 기록의 부재를 심각하게 통감하였다. 다시 2007년도 1월, 2차 현지조사에서는 새로운 구술자 조사와 함께, 1차 현지조사 시 만났던 몇 명의 구술자를 재조사하여 1차 조사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 보강하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17) 황규열, 『교동사』(교동문화연구원, 1995), 36쪽.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2006~7년 현지 조사에서는 교동 주민 24명, 비교동 주민 1명을 조사하였다. 교동의 현지조사일은 3주 이상 체류하면서 실시되었다. 구술자들의 간단한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술자들은 모두 성이 없는 가명으로 기록했다.¹⁸⁾

<표 2> 강화군 교동면 관련 구술자 인적 사항

순번	가명	출생년도	성별	출생지	현거주지	직업/직위
1	훈정	1934	남	교동 동산리	교동 동산리	농업
2	봉철	1937	남	황해 연백군	교동 대룡리	자영업/농업
3	철식	1935	남	교동 상용리	교동 상용리	농업/교회 장로
4	종철	1936	남	교동 상용리	교동 상용리	부업-낙시업, 부인-전통공예
5	경민	1935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사회단체간부
6	희자	1939	여	교동 읍내리	교동 인사리	농업/주부
7	영환	1921	남	교동 읍내리	교동 읍내리	퇴직교육자/부업-농업
8	수길	1934	남	교동 상용리	교동 대룡리	상업, 농업
9	장수	1938	남	교동 양갑리	교동 대룡리	자영업(서비스), 사회단체간부
10	영철	1927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11	경민	1935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12	명인	1934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13	상희	1919	남	교동 읍내리	(부부)	농업, 상업(일제)
14	시영	1921	녀	교동 난정리	교동 읍내리	전통공예
15	유현	1933	남	교동 읍내리	교동 읍내리	농업, 잡역, 사회단체간부
16	길영	1933	남	교동 삼선리	(부부)	농업, 정미업, 사회단체간부
17	연임	1934	녀	교동 삼선리	교동 삼선리	농업
18	인장	1933	남	교동 인사리	교동 인사리	농업, 사회단체간부
19	남산	1929	남	교동 읍내리	(부부)	농업, 사회단체간부
20	서영	1934	녀	교동 서한리	교동 읍내리	주부, 사회단체간부
21	정인	1933	남	교동 대룡리	교동 대룡리	상업, 정당인, 사회단체간부
22	대서	1935	남	교동 고구리	(부부)	농업, 사무직, 사회단체간부
23	명희	1934	녀	강화 보름도	교동 고구리	농업
24	길례	1937	녀	교동 무학리	교동 인사리	농업
25	'츠'복사	1965	남	경기 여주	경기 김포	복사

* 구술자는 면접한 날짜 순서대로 배열하였음.

18) '성'을 쓰지 않는 것은 교동의 각 리에는 동족이 많이 살고 구술자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25명 구술자의 출생년도를 보면, 1910년대 생이 1명, 1920년대 생 4명, 1930년대 생 19명, 1960년대 생 1명으로서 현재 70대인 1930년대 출생자를 주로 면접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 기간에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 보면 남:녀는 19:6명이며, 8명은 4쌍의 부부로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였다. 출생지와 현거주지를 비교해 볼 때, 둘이 일치하는 사람은 16명이다. 여성 1명을 제외한 여성 5명 모두 결혼을 통해 남편의 거주지로 이주하였다. 남성 중 3명은 다른 지역에서 교동의 면소재지인 대룡리로 이주하였다. ‘丈’목사는 1990년대 목회지가 교동면 고구리였으나, 2007년 당시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였다. 직업에 있어서 교동 주민들의 경우 대개 농업에 종사하지만, 대룡리 거주자들은 모두 상업을 주로 하고,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지역 권력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이번 조사의 기획을 반영하여 전직 이장 출신을 포함한 지역 사회단체간부들이 9명(남 8명, 여 1명)을 조사하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분단과 전쟁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가져온 공간의 변화를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록과 구술 증언을 통하여 교동의 주변 환경적 모습과 전통적 지역 중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1950년 6·25 전쟁 이후 변화된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III. 1950년 전후 기록에 나타난 교동 지역 사회의 구조

교동면을 둘러싼 기록과 구술 증언을 바탕으로 교동 지역의 공간적 구성이 어떻게 변해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보면 기록 속에서 교동의 틀을 그려나가겠지만, 기록은 지극히 소략할 뿐만 아니라, 해방 전후시기부터 전쟁 시기까지의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에 담겨져 있지 않는 교동 모습을 재현하고 그 변화를 읽어 나기는데 구술 증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열린 교동에서 닫힌 교동으로

현재 강화군 교동면은 강화군에 부속되어 있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에 불과

<그림 1>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도



* 지금은 기능을 상실한 포구 등은 () 로 표시하였음.
출처: 교동면사무소 게시 사진(2006. 1. 12 촬영)을 재구성함.

하지만, 적어도 교동면은 중세사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크게 보면 교동은 고려조와 조선조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으로 통하는 입구¹⁹⁾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군사적 교통로로서 지위를 가진다. 그 예를 해안선의 길이 37.2km를 가진 크지 않은 섬 교동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포구

(浦口) 및 나루(津, 津)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 교동의 포구로는 남산포, 월선포, 호두포, 낙두포, 울두포, 말탄포, 죽산포, 빈장포 등이 있고, 동진나루와 북진나루가 있다.²⁰⁾ 10여개의 포구 가운데 지금은 동남쪽의 ‘월선포’(교동~강화)가 유일하게 민간인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남산포는 군사적 이유로 개방되어 있을 뿐 다른 지역들은 포구로서의 역할을 중단되고 말았다.²¹⁾ 교동의 지도를 <그림 1>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교동면 동산리의 훈정의 증언을 통하여 한국전쟁 직전까지 포구로서 활발하게 역할을 하였던 교동 서남쪽에 위치한 죽산포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예- 저- 이 ‘교동’ 우리 ‘동산리’- 여 ‘죽산포’-라고 있어. ‘죽산포’ 거기 포구 야. 포군데...이- 6·25- 그니깐- 어 휴전되고 나서도 그 ‘죽산포’ 앞 바다로

19) 위의 책, 14쪽.

20) 재인교동면민회(엮음), 『교동향토지』(재인교동면민회, 1995), 26~27쪽.

21) “선박안전조업규칙”(제정일 2000. 8. 9)에 따르면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은 서해 어로한계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두 지역을 제외하고 교동에서는 어느 포구도 과거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배가 땡겼어. 거 저- 어로 저지선이 여기 지금 생겨 있거든. 그 어로저지선이... 6·25 나고 후에 에- 휴전되고 나서도 어로저지선이 없었어요. 내 중에 간첩선이 자꾸 그 왕래를 하기 때문에...래가 아니라 출몰을 한 거죠. 출몰하니깐 어로저지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로저지선 생기기 전에는 - 이쪽 잇 그 어장이 여기 이 지금 이쪽 해변. 해변 이쪽으로도 어장이 어 저기 새우젓 잡고 하는 배들이 아주 팍 들어차고 그랬어. (...) 근데 이쪽 포구로 '서울,' '마포' 여기서 배가 저 '서울,' '마포'로 드나들었어. '죽산포'가 그랬어. 그...저- 서해안 저 '연평도' 거긴 그 그뻬 거기가 저 그 조기 고장 아니야? (...) 그때는 '연평도'가 조기 고장이거든. 서해 '연평도'에서 조기 싣고 들어오면 그루 '죽산포'로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간 거야. 여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중간-포구야. 그러니까...그래가지고 거기가 '죽산포'가 술집도 많고. 거기생들도 많고. 아주 유명한 포구였었다고...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해방되고 나서도... (...) 왜 죽산포냐? 배가 대나무처럼 들어차 있기 때문에. 배 돛대가 대나무처럼 말아야. 그냥 들어 붙여 가지고 이름이 '죽산포'다 그거예요 (훈정 구술).

<그림 2>에서 보듯, 현재 철책으로 둘러쳐진 죽산포를 보면서 훈정을 비롯한 이 지역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또한 교동면 인사리의 경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양기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운업을 했는데, 항로는 인천~인사리 북진나루~연백군(현 황해도)백석포를 다녔다(경민 구술). 또한 서울로 가는 길도 현재 월선포를 건너 강화와 김포를 거쳐 서울을 왕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교동 삼선리에 거주하는 길영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삼선리) 집에서 떠나 인사리에서 인사리로 타가지고, 저- 거기가 어딘가? 할미대²²⁾, 저 이북땅이죠. 지금 개성 아래 거기 대고 그 다음에 거- 가는 경로가 다 있는데 그 다음엔 어딘지 다 몰라요, 그리고 저- 김포 대고, 그 다음에 한강으로 들어가서 마포에 대요. 거기가 종점이었어요(길영 구술).

22)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북면 바닷가 지역에 '할미필'과 암석인 할미대가 있다. 설화가 담겨져 있는 지명이다. 참고: <http://www.burimhong.pe.kr/jaryo%20room/4-1%20kyunggi%20do.htm>.

해방 공간 서울에서 선린중학교를 다녔던 길영의 증언을 통해 과거에 존재했던 ‘한강선’의 실재를 짐작할 수 있다. 한강선은 마포⇒선이봉(영등포)⇒염창(염창동)²³⁾⇒영정포(개풍)⇒당머리(개풍)⇒고미포(개풍)⇒인사리(교동)를 종착포구로 하여 한강선이 하루 1회 편도 운항을 하였다.²⁴⁾

<그림 2> 철책으로 둘러싸인 강화도 일대



요약컨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 교동은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 강점기까지 행정적 위상은 군에서 면으로 바뀌었으나 바다와 육지를 잇는 교동의 거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 되면서 교동은 황해도 연백군의 바로 밑에 위치한 접경지대이면서 군사상 ‘민통선’ 지역에 소속되면서 강화도에 부속된 작은 면단위 섬에 불과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로 교동은 오로지 강화도

창후리로 가는 동남쪽 항로만 열려 있고, 다른 모든 항로는 차단당하게 되었다. 전쟁 이래로 분단된 휴전선 직하의 섬 교동은 닫힌 섬이 되어 있다.

2. 교동 지역사회의 중심지의 구성과 변화

닫힌 섬이 된 교동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여러 개의 포구를 끼고 번창하였던 면소재지인 읍내리(邑內里)가 일개 리로 된 점

23) 염창동은 조선시대에 서해안의 염전으로부터 채취해 온 소금을 서울로 운반하는 소금배의 뱃길 어귀인 이곳에 소금보관창고(염창동 103번지 근방)를 지었기 때문에 염창동(鹽倉洞)이란 동명(洞名)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염창동사무소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portal/dong/1001/index.jsp>) 참조.
 24) 재인교동면민회, 앞의 책(1995), 27쪽.

이다. 전국 대부분의 면단위 지역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면 소재지가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현재 교동면 역시 면소재지가 있는 대룡리(大龍里)가 정치적·사회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의 <그림 1>에는 현재 면사무소와 파출소, 농협 등의 중요 기관들이 교동면 대룡리에 소재하고 있다. 교동을 방문하여 관찰하면 전반적 농촌 분위기 속에서도 대룡리에는 일정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면사무소나 파출소 등은 1948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체국이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동초등학교, 1954년 설립된 교동중학교, 1972년 개교한 교동고등학교, 각종 기관이나 시장, 상점, 주유소, 연쇄점, 유흥업소, PC방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교동면에서 전통적으로 중심의 역할을 해왔고, 면소재지가 있었던 곳은 ‘읍내리(邑內里)’로서 그곳에는 ‘교동읍성(喬桐邑城)’과 ‘남문(南門)’의 흔적이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1914년 이전까지는 교동군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1899년의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광무 3년 5월』에 잘 반영되어 있다. 교동군이던 시기 교동읍이 소재한 곳은 읍내리였고, 그런 사실은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까지는 계속되었다. 특히 읍내리의 하위 마을인 ‘성내동(城內洞)’과 ‘사하동’ 가운데 성내동이 교동 권력의 중심이었다. 과거 성내동에는 교동현감이 머물던 관청이나 감옥서, 대운관, 이사영, 근민당, 백화당, 교련관청, 훈련청, 포도관청, 형옥 등의 많은 관아가 있었다.²⁵⁾ 일제시대 이래 교동의 주요 기관에 대한 소개를 『교동향토지』²⁶⁾ 등을 기초로 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교동면사무소

1910년 일제 강점 후 교동은 4개면 13개리로 행정구획이 변경되었다가 곧이어 1914년 교동군이 강화군과 합군되면서 동서남북면을 화개면과 수정면 2개면으로 나누었다. 당시 화개면 사무소는 읍내리 성내동에 두었고, 수정면 사무소는 현 난정리에 속하는 구정부락(구정골)에 두었다. 다시 1934년 화개면과 수정면을 합쳐 교동면이 되면서 화개면에 사무소를 사용하다가 1948년 대룡리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교동의 위세가 격화되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5) 위의 책, 47-48쪽.

26) 위의 책, 49-51쪽.

▷ 교동지서

교동 지서는 1911년 강화경찰서 교동경찰관 주재소로 설치되었고 당시 일본인 경찰관과 헌병 10여명이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난정리에도 주재소를 두었다가 1922년 철수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교동지서로 승격하고 8~9명의 경찰관으로 치안을 담당하다가 1948년 교동면 사무소가 대통령리로 이전하면서 교동지서도 이전하여, 현재는 파출소로 불린다.

▷ 교동 금융조합

교동 금융조합에 관한 기록은 전무한 편인데, 교동 금융조합은 1920년경에 교동 읍내리 교동부사 자리에 설치되었고, 1955년 금융조합이 해체되어 강화농업은행 교동지서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59년 군농회와 축산농업조합을 통합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73년 대통령리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연쇄점을 갖춘 규모로 성장하였다.

▷ 교동의 교육기관

교동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동향교의 설립원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대략 충렬왕 12년(1286년) 중국을 다녀오던 김문정 등의 유학자가 교동이 일시 방문하여 교동향교에 기착하였다고 하여 교동 사학자들은 고려 인종 5년경인 1127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는 화개산 북쪽에 있었으나 조선조 영조 17년(1741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고, 고종 27년(1890년)에 동서 체실을 증건하였고, 1931년 대성전을 중수하였다.²⁷⁾ 향교는 교동의 현대 교육 기관인 교동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배출한 산파역을 하였다.

교동국민학교는 광무 6년, 즉 1906년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민학교는 처음 읍내리 교동향교 내에 사립 ‘화개농업학교’로 설립되어 1911년 사립 ‘교동보통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12년 3월 ‘교동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그 사이 교사를 읍내리 성내동으로 옮겼다가, 1926년 12월에 이르러 대통령리로 이전하였다. 1930년대에는 난정리에도 교동공립국민학교 부설 난정간이학교를 세우고, 1946년에는 상방분교, 지식분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 교동에는 교동초등학교 외에도 난정초등학교(난정리 소재), 지식초등학교(삼

27) 교동향교지편찬위원회, 『교동향교지』(교동향교, 1987), 65쪽.

선리 소재) 3개소가 있다.²⁸⁾

그 밖에 교동우체국도 1904년 설립 당시 처음에는 읍내리 이사영(중영청) 청사를 사용하였다가, 1970년대 이후 대룡리로 이전되었고 전신전화 업무도 시작되었다.

비록 전체 한반도에서 교동의 위상은 과거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일제시대 이래로 강화군의 부속 면으로 편입되면서, 교동은 일개 섬으로 되고 말았다.

한편 조선조 이래로 교동의 중심이었던 읍내리의 남산포에는 ‘사신관(使臣館)’을 세울 만큼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읍내리는 조선조로부터 일제 강점기에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 흐름은 대략 해방과 전쟁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도 현재 교동의 중심은 대룡리에 집중되어 있다. 교동의 중심이 바뀐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교동 관련한 문서 자료에는 이 문제를 풀어 줄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교동면사무소, 강화군청, 강화군문화원, 경찰서, 교동파출소 등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사람의 기억 속에 담긴 기록의 모자이크를 통하여 흩어진 사실들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IV. 구술 속에 재현된 교동 공간의 중심지 이동

면소재지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지리학적 이동이었다기 보다는 분단에 의한 지정학적 변화와 맞물리는 정치적 변화로 볼 수 있다. 1945년 8·15 해방 당시, 가장 요란스럽게 해방을 맞았던 동네는 읍내리였고,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읍내리였다. 또한 해방기 읍내리는 교동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집결했었고, 해방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가장 심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28) 교동초등학교100년사편집위원회(역음), 『교동초등학교백년사』(교동초등학교총동창회, 2006), 44~45쪽.

반면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점차 지역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곳은 대룡리였다. 일제 시기 이미 개발되기 시작한 11번 지방도와 대룡리~삼선리 간의 도로가 만나는 곳이었던 때문에 이곳은 교동 교통로의 결절점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1948년 건국이 되면서 면소재지가 읍내리에서 대룡리로 바뀌지만, 한국전쟁 시기에는 면의 중심은 여전히 읍내리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섬의 북쪽 해안선이 봉쇄되고 점차 남쪽 해안선마저 제 구실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교동은 해안 입지 중심에서 내륙 입지 중심으로 변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교동의 중심지가 읍내리에서 대룡리로 변천해 나가는 과정을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한국전쟁 시기를 포함한 1950년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동의 봄과 읍내리

<그림 3> 해방 전후 시기 교동면 읍내리 성내동 약도



* 읍내리 ‘남산’과 ‘영환’, ‘유현’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시도함.
 ** 김석홍씨 집은 정식 교동중학교가 있던 곳이 아니라 임시로 있었고, 중학교는 교동향교에서 개설을 하였다.

교동의 현대사를 통 털어 볼 때 가장 ‘봄’다운 ‘봄’은 해방 직후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유일하게 존재했던 시기였다. 그 봄은 너무도 짧아 곧 닥쳐올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이라는 긴 겨울 속으로 빠져들어야 했다. 전체 한국 사회에서 현대사적 전환기가 된 시점으로 1987년²⁹⁾을 꼽곤 한다. 물론 교동면을 포함한 강화군 일대에도 1987년 이후 표피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으나,

29) 조희연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1987년 체제’로 부른 바 있으나 이 개념에 대해서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조희연(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함께읽는 책, 2004), 8쪽.

21세기에도 여전히 1950년대 냉전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교동면의 해방 전후한 시기부터 1950년대의 역동적인, 너무도 역동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추적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해방 전후 시기 교동면 읍내리의 모습을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해방 시기에는 교동국민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무실들은 읍내리 성내동에 모여 있었다. 해방 이후 이 지역의 주인은 몇 차례 바뀌었다.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한반도 모든 지역이 그렇듯 교동의 사람들도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상용리에서는 동네 산에 봉화를 짚어 올렸고, 양갑리 주민들도 나와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

해방되고서는 팽과리 치고, 그런 행사 비슷한 게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냥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냥 춤추고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거 했었죠. 그 저- 징용 갔다가 해방되니까 돌아온 사람들은...교동서도 (태평양)전쟁 갔다가 못 돌아온 분이 있는 저- 난 모르겠는데, 우리아버지 또래 그 나이 또래 많이 갔다 왔어요(장수 구술).

해방 당시 7살이었던 장수에게 해방은 강제징용 당했던 아버지와 아버지가 갖고 온 생전 처음 먹어본 ‘건빵’으로 기억되었다. 해방 직후 교동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들과 비슷하게 구장이나 면장, 주재소 순사들이었다. 그 이유는 일제의 강제 동원 정책에 따라 식량 및 물자와 함께 강제징용자를 추출하는데 구장이나 면장, 순사들이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징용자) 해당 나와서 통지가 나왔는데, 그 지서가 있더랬거든? 읍내리. 지서들 순경 나 잘 알고 있으니까” (상희 구술). 이러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교동 읍내리에서는 “팽과리 치고 땡기고 쫓아 땡기고 구경”(유현 구술)하는 것과 같은 풍물패의 경축행사와 함께 읍내리에서 소위 ‘친일반민족자’로 지명되었던 몇 명의 집이 파손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면장이나 구장, 부면장 같은 사람들이) 여길 배 타고 (피난)나갔는데 그쪽에 기억나지만 장죽간 이런 거 큰 거 막 깨트리고 설탕(포)나 광목 찢고, 뭐 기억이 나. 사진은 안 찍어 봤지만 나 기억은 나요. 그런 거 경험도(유현 구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동네 주민들이 친일반민족자들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자, 일제 권력자들은 피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회’의 형도 부면장과 배급조합장을 역임하였으므로 면장과 함께 읍내리 한** 구장은 모두 인천 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세, 네 달 후에 귀향하였다. 그러나 ‘상회’는 더 이상 읍내리 배급조합장이었던 ‘부인상회’를 운영할 수 없었다. 즉 일제 강점기 구권력층은 맥아더사령관 포고 제1호³⁰⁾와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귀향했으나 다시 권력의 전면에서 나서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공간 새로운 권력층이 부상하였다. 새로운 권력층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성장하였다. 바로 ‘금융조합’이었다.

해방 직후 전국적으로 식량을 비롯한 물자가 품귀현상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교동에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계열 항일운동가였던 조준홍(일명 조준명)은 금융조합을 배경으로 “보쟁기, 호미, 낫 등 농기구를 준다”³¹⁾고 하여 섬 주민들은 급속하고 맹목적으로 사회주의화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20년대 교동에 설립되었던 ‘금융조합’은 일본 총독부의 시책으로 설립되었는데, 교동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해방 후 금융조합이 급진화되었던 탓일까? 해방 직후 전국적으로 보면 금융조합은 급진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미군정에 협조적이었으며, 미군정의 시책을 쫓아 해방 후 조선 농민을 통치하는 데 금융조합은 친화적이었다.³²⁾ 그러나 교동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이 금융조합에 직원으로 들어가 농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농지개혁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술에 참여한 교동 주민들—대부분의 강화군민들—은 ‘농지개혁’을 흔히 ‘토지개혁’이라고 명명하였다. 물론 북한식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이 아니라 미군정 하에서 마련되었던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이었다. 답지를 15,000여 평을 보유했던 길영의 아버지도 9천 평³³⁾만 남기고 모두 소작인에게 분배(길영 구술)해야만 했다. 그런데 교동 전체에서 농지개혁에 의해 가

30) 송남현, 『해방3년사(I)』(까치, 1985), 97~98쪽.

31) 김귀옥, 앞의 논문(2006).

32) 이승억, 『8·15 후 남한에서의 금융조합 재편과정(1945~1958)』, 한양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33) 1949년 ‘농지개혁법’ 제12조에 따르면 토지소유면적 3정보 원칙에 따라 9천 평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본다.

장 타격을 입었던 사람은 강화지역 최대 부호로 손꼽혔던 김석홍 집안이었다.

옛날에는 말하자면 고리대금이야. 그렇지, 그런데다 돈을 빌려 왔는데 그걸 못 갚으면 그냥 자기 차지가 된 거지. 그 사람(김석홍)이 땅이 많아지구 교동에서는 그야말로 이쪽에서는 남의 땅 안 디디구 다닐 정도로 많았다는 거지. (...) 솔직히 얘기가 그렇게 되가지구 인심을 좋게 얻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가 그렇게 해서 땅을 얻은 사람은 그래 가지구 8·15 해방되고 그게 그분네가 아마 살림이 없어진 게, 토지개혁이 있었잖아요(서영 구술).

서영의 남편은 김석홍과 친척이 되어 김석홍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자, 서영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였다. 김석홍이 강화 일대의 천석꾼³⁴⁾ 대지주가 된 원동력은 고리대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가족사적으로 보면 김석홍의 아들은 상환금으로 받은 돈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운송업을 열었으나(서영 구술, 영환 구술), 근대 기업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천석꾼의 명성이 3대도 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고리대금업을 바탕으로 한 대지주의 막강한 경제력에는 일본 총독부의 토지 관계 정책과 지역 권력 기관에 후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석홍의 토지는 강화도 일대와 교동 전체에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교동 전체 소작농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방 이후 김석홍과 같은 대지주는 일차적 경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력과의 지속적인 밀월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김석홍 집안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기간에 좌우 양진영의 본부가 되었다. 심지어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 1949년 보도연맹이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교동에 보도연맹과 연관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윤재근의원 (...) 단기4282년(서기 1949년) 10월 25일에 방첩원 진운성 외 다섯 사람이 강화도 교동면에 주재케 되었습니다.
주재된 후 주민 가운데에 약 40여명을 불법납치해다가 OO소 고갯에다가 넣

34) 당시 100평에서 벼 1가마가 생산되었으므로 천석꾼이란, 벼 천석이면 최소 논 10만평, 쌀 천석이면 최소 논 20만평을 보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과거 천석꾼 개념에는 밭이나 임야는 포함되지 않되, 대부분의 지주는 밭이나 임야도 소유했으므로 모든 토지를 합하면 수십만 평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고 한 1주일 후 비인도적 00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그간의 결과로서 교동 면장 한기복 제(弟), 한00이가 피살당했고, 피살당하던 그 다음날 논바닥을 파고 암장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 이렇게 40여명을 납치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 앞에 만원내지 2만원정도의 돈을 걷고 또 그지대에서 보통한 사람 앞에 쌀 한말 정도를 걷어놓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³⁵⁾

1949년 10월 하순, 교동에서 발생한 ‘방첩대원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읍내리 김석홍씨네 창고(곡간)이었다. 또한 ‘ㅈ’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납치되어 온 사람은 교동 내 보도연맹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ㅈ’목사 구술). 그런데 6·25 전쟁 직후 소위 ‘인공정치’ 당시 면장이나 우익이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던 곳(회자 구술; 충철 구술)도 김석홍 집 창고이었으며, ‘군정시기’ 치안대를 비롯한 군 기관의 본부였고 곡간은 고문실로 변했다. 가을걷이철이 되면 사방에서 벧가마가 김석홍의 집을 향해 줄을 이었고, 그 재력이 읍내리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남산 구술). 강화 일대 대지주로 손꼽혔던 김석홍은 우익적 위치일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그 권력에 추수하는 양상을 거듭해서 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가운데 답작지만 해도 수십 만 평을 보유했던 막강한 재력의 대지주가 근대화 실패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읍내리 성내동을 유지하던 전통적 물적 토대가 195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

또한 교동 교육의 중심지였던 읍내리도 1950년대를 통하여 무기력화되었다. 교동 향교는 일제 강점기에도 나름대로 근대적 학문 체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던 것 같은데, 향교의 명륜당 출신들이 교동 전체 글방 선생이 되었고(영환 구술), 1910, 20년대에는 의숙이 교동면 내 여러 곳에 생겼다. 대표적인 의숙으로 1920년대 설립된 교동 인사리 황용익의 인흥의숙에서는 경서 뿐만 아니라 기하, 대수 등도 가르쳤던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경서만 고집하는 재래서당보다는 ‘개량서당’³⁶⁾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926년도에 초등학교는 대룡리로 이전했으나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대룡리가 교

35) 국회사무처, 『국회입시회의속기록』, 제5회 제54호(국회사무처, 1949), 1286쪽.

36) 조성일, 「1920년대 민족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당·야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0).

동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또는 52년 경에 김석홍 집과 향교를 오가며 비인가 중등교육기관인 ‘교동명륜고등공민학교’가 읍내리를 중심으로 한 교동 유지들의 후원에 의해 설립되었고, 1954년 정식으로 교동중학교로 발족하게 되었다. 1965년에야 현재의 대룡리 중학교 자리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른다.

교동의 전통적 소재지였던 읍내리에는 조준홍, 김봉룡 등과 같은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집결하였고, 한국전쟁 시기 인공정치의 중앙 무대였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나 부역했던 사람들은 대개 월북을 하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으며, 그중 적잖은 사람은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 일부는 강화읍 지사로 보내어져 학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따라서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읍내리는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권력의 공동화를 겪게 되었다.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권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월북 사건과 반공주의자들에 의한 피학살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탈중심화를 거치게 되었다. 또한 김석홍으로 대변되었던 전통적 경제력도 분산되었으며, 근대적·반공적 가치관의 파급속에서 사회문화적 지식권력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문화되었다.

한편 이 글에서는 교동면의 서북부에 위치한 인사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사리는 현재 교동면에서는 서북 변방에 속하지만, 과거 연백군이나 서울 등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황인섭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영향 탓인지, 사회주의 계통의 청년조직도 자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연안의 우익단체, 특공대들이 교동이나 이남지역으로 내려오던 길목이 바로 인사리였고, 교동 좌익들이 월북하던 지역도 바로 여기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커다란 피해를 봤던 곳 중 하나가 인사리 지역이었다.

일제 강점기 교동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으로서 항일운동을 했던 와세다대학 출신인 황인섭의 영향이 있었다고 알려진 청년모임인 협성회는 인사리 마을 인현동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37)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김귀옥, 『한국전쟁과 강화도, 고통의 기록: 강화지역 한국전쟁 피해자 조사 실태보고서』(한성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전쟁과평화연구소, 2007).

협성회를 조직을 해 갖고, 작사, 작곡하고 그 정도예요. 다른 일은,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협성회 노래는 있어 갖고, 또 그리고, 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 가서 “안중근의사(연극)”를 보구서 그거를 머리에 넣고 와서, 이- 이게 뭐니까 그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연극을, 옆에서 연습을 겨우내 해가지고, 대룡(교동)국민 학교에다, 막 차리고 문도 이렇게 들고 나가게끔 다, 기와, 지붕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보통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인장 구술).

그들이 공연했던 “안중근의사”를 관람했던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인사리의 ‘경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룡리의 ‘봉철’도 관람을 했었다. 또한 그들은 야학을 통하여 섬지역 주민들에게 육지에서의 정세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피력했다고 한다(인장 구술). 그러한 협성회와 같은 청년조직이 고구리나 봉소리에도 있었다고 했으나 직접 증언을 접하지는 못했다. 아무튼 인사리 청년 협성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스무 명이 넘었으며, 황*익을 비롯한 대다수가 월복을 하였다고 한다(인장 구술).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활동했던 사람은 눈이 띄지 않는다. 다만 6·25 이후 인공정치 시절 친북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결과 1950년 겨울부터 1951년 봄에 이르는 ‘군정시기’ 초기에 수많은 월복자 이산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참변이 벌어지게 되었다(경민 구술, 인장 구술).³⁸⁾ 인사리 청년조직, 협성회에 대한 기억의 망실은 전쟁과정의 월복과 집단 학살에 침묵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망각의 동학에는 지정학적으로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조건에서 바닷가가 봉쇄당했던 조건과 함께 전쟁 이후 지배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지역 역사에서의 배제운동이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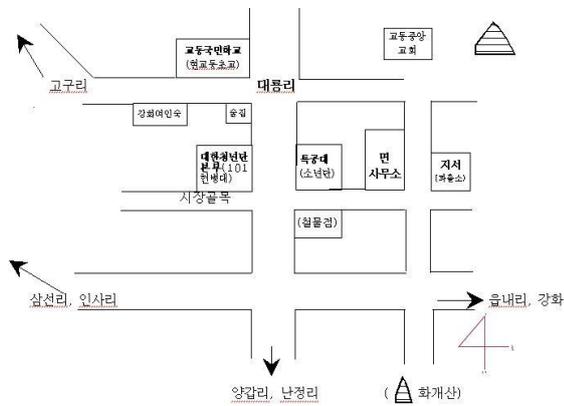
2. 반공의 시대, 변화된 권력 구조

1950년 겨울 이래로 군정시기에 돌입하면서 교동의 모든 권력은 정규·비정규 군대에 집중되었다. 유격대로서 을지병단, 타이거여단, 군첩보 계통인 KLO(흔히 켈로부대), 이글부대, 파라슈트부대, RP대 등이 있었고, 1950년대 후반에 해병대

38) 위의 논문(2007), 105~116쪽.

가 교동에 들어오면서 다른 군부대들은 사라진다. 전쟁 당시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부대는 유엔군 산하 8240³⁹⁾ 유격대 타이거여단이었으나, 그들은 정전협정 이후 정규부대인 한국군 8250부대로 변모하게 된다.⁴⁰⁾ 읍내리 김석홍씨의 집에는 방첩대 본부가 주둔했고(남산 구술), 인사리 친일파 부자로서 해방 후 서울로 피신을 한 황남용씨의 집에는 8240부대 대대본부 주둔하였다(인장 구술). 또한 전시 사회적 권력으로서 대한청년단, 치안대와 소년단 등이 존재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는 읍내리와 대룡리가 주요 거점이 되었다가 한국전쟁이 정전되면서 중심이 대룡리로 모아졌다. 1950년대 대룡리 소재지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1950년대 대룡리 소재지의 모습



1950년대 대룡리 모습에서 우선 눈에 띄는 기관이 ‘특공대’이고, ‘대한청년단’, ‘소년단’ 등이다. 그 기관들은 1950년대 전후에 사라지지만, 교동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다. 심지어 술집은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생겼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1950년 말, 1951년 초 교동 사회에서 원성이 자자했던

* 정인과 봉철 등의 구술을 토대로 재구성.

층이 바로 특공대이다. 그들은 교동뿐만 아니라 강화도, 석모도, 서도, 아차도, 주문도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학살 사건의 주역들이었다. 최태욱의 글에 따르면 특공대란 ‘교동해병(군)특공대’⁴¹⁾이며, 일명 ‘연안특공대’라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학살되었던 교동 주민만 해도 200~500여명이 되는데, 그 주범이 연안특공대로 알려져 있고, 교동 주민들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살해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39) 8240부대편성표와 부대원명단이 현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영구보존문서로 지정되어 있다. 조이현,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기록보존』, 12호(1999), 225~232쪽.

40) 8240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약음), 『8240』(8240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 2004), 8쪽.

41) 최태욱, 앞의 논문, 173~174쪽.

연안특공대는 황해도 연백군 해성면, 호남면, 온정면, 해월면 출신 월남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1950년 이전까지 평균 7천여명 정도이던 교동인구가 1951년 29,764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당시 유엔 민사처 자료에 따르면 교동 원주민 10,505명, 피난민 19,259명으로 집계되어 있다.⁴²⁾ 다시 말해 2만명의 가까운 월남인들이 교동으로 몰릴듯 몰려왔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교동 역사의 비극과 얽혀 있었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연안특공대로 불려지며, 교동의 좌익 청소, 제노사이드(genocide)에 앞장섰다. 13살 소녀 길례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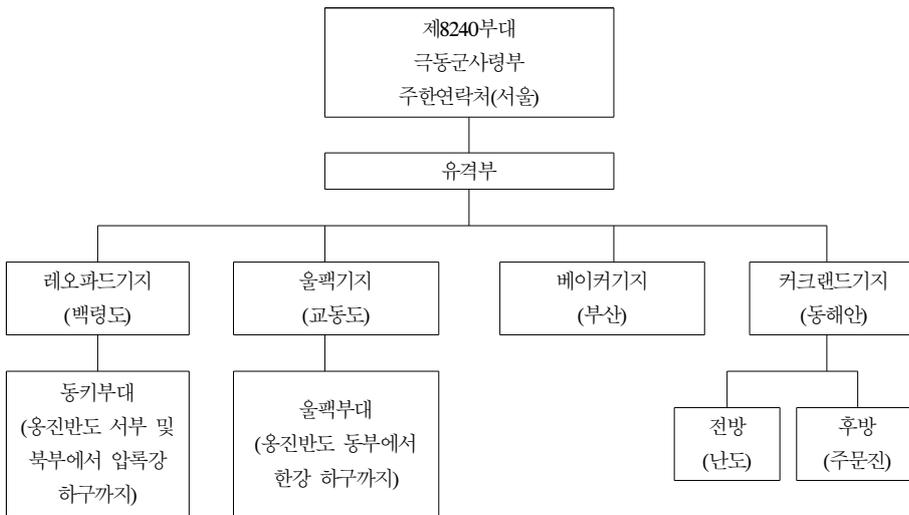
우리 어머니 보고, 또 우리 이모가 이러드래. “성-” 그땐 성이라고 해. “성- 성- 나 죽으러 나가는데, 사람 좀 살라-”는데, 나가서 또 이거 우리 동생네 끌고 나가냐 하면, 또 우리 어머니도 총살 맞는데-, 그때 6·25때. 근데 방안에서 가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그냥 “저 동상 죽으러 나간다고-” 그냥 우리들 쪼꼬만거 앉쳐놓구- 느이 이모 죽으러 나가니 어떡하면 좋냐구- 그러는데. 그 6·25때는 눈이 이렇게 왔으니까- 눈이-. 근데 하나는 이모가 업고, 그 일곱 살 먹은 거(xx)들- 저 산을- 무학리 그 산(x)뎀 걸어 올라가는 순간, 용아- 그 일곱 살 먹은 거였는데- 저-, 어떻게- 옛날에- 옷도 못입은 그걸- 근데 그 바닷가에서 일곱 명을 이렇게 세워 놓구, 뽕뽕뽕- 쏘는데, 열일곱살 먹은 시누이는 저- 머루네로 약혼했는데- 빗맞았대. 빗맞았는데- 거기에로다가 왜 밭에 바위가 많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려고 보니 요기 요렇게 죽었드래. (쫓쫓쫓) 그래서 그걸- 가슴으로 끌어다가,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었으니까 못 묻구선, 무슨 빨래대기 하나 갖다 이렇게 덮어놓구, 봄에 뜨듯한데 나가선, 저- 요- 요고- 산(xx) 여기다 끌어다 났다(길례 구술).

당시 죽은 사람은 이모부네 가족 7명인데, 이모부가 월북하게 되자, 할아버지로 부터 이모, 7살 아이까지 몰살당했다. 그는 지금도 연안특공대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고, 당시의 기억으로 최근에도 악몽을 꿀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정규군대인 연안특공대의 실체는 모호하지만, 그 특공대는 전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9호), “비상시 향토방위령”(1950. 8. 4)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던

42) RG338,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1951, Box 19 Investigations, File No. 333. 수집번호(02010950). 이 자료는 2007피해자 조사 중앙자료팀(강성현·김득중·김학재)에서 발굴한 것임.

것으로 보인다.⁴³⁾ 그 후 이 특공대는 1951년 3월 이후 8240부대 관할로 편입해 들어갔다. 또한 비정규부대인 8240부대는 미군에 의해 조직⁴⁴⁾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특공대 역시 유엔군 소속 유격대로 소속되었다고 보아 마땅하고, 그들은 사실상 유엔군의 이름으로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하다. 따라서 당시 학살의 직접적 책임은 특공대 자신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유엔군에 있음은 사실 관계상 확실하다. 당시 특공대는 1951년 여름, 8240 유격대로 대부분 편입되지만, 편입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림 5> 8240부대의 유격대 편성(1952.1)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위의 책(2003), 143쪽.

즉 교동에는 제8240부대 중 1천여명 규모의 여단급 울괘기지가 창설되어 휴전 당시까지 활동함으로써 교동은 전시 중요 요충지이자, 반공적 맹위를 떨치는 요람으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년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단의 법적 근거 또한 특공대와 같은 대통령령에서 나온다. 전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9호)에 따라 만14세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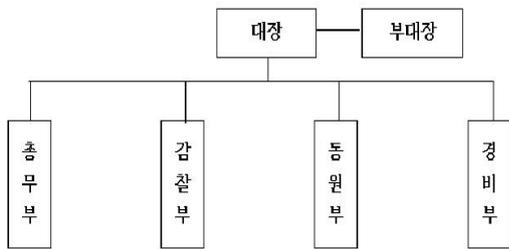
43)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1년사』(국방부, 1952), C58~59쪽.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국방부, 2003), 143~145쪽.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동청소년유격대’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단’의 원명칭에 대해서는 구구하지만, 소년단 관련 사업회 회장인 김덕봉의 자서전적 서적인 강화청소년유격대 기념사업회가 엮은 『반공투쟁』이라는 책에는 ‘강화청소년유격대’라고 하는데, 교동소년단원들은 자신의 모임을 “교동소년단 유격동지회”(철식구술), 줄여서 소년단으로 약칭하였다.

소년단은 대개 13~19세 이르는 청소년이 참가하였는데, 인공정치 기간에 좌익 부역의 혐의가 있는 집안의 청소년일수록 생존의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봉철 구술, 수길 구술). 소년단은 대개 치안대 부속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공대의 활동에도 깊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년단의 구성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1950년대 초반 교동 소년단 구성도



이번 교동 현지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을 제외한 70대 전후한 남성 구술자의 대다수가 소년단 출신이라는 점이다. 전시에 2, 30대 남성들은 대다수 징병 또는 제2국민병이나 KSC 등으로 징용당하여 전시 교동을 떠나 있었다. 그러나 보니 1950년대 초

중반 교동 사회의 지킴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과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역할은 첫째, 이북의 피난민 가운데 섞인 간첩 투입을 막거나 좌익 혐의 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월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이나 동네 경비를 서는 일이었다. 둘째, 지역민들 가운데 좌익 부역자거나 그 가족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일이었다(종철 구술, 인장 구술). 셋째, 부역자 및 그 가족 학살의 방조지역이나 실제 학살하도록 강요받는 일도 있다(경민 구술). 넷째, 특공대나 타이거여단 부대원의 의식주 해결에 협조하는 일 등이었다. 1950년대 전후하여 많은 유격대, 첩보대 기관은 떠나고, 해병대가 교동에 주둔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른다.

전시 소년단원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우익에 의해 학살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명인 구술). 그러나 그는 지역내 부역 혐의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고, 연백 등 북한 지역에 침투하는 공작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오히려 소위 ‘손가락 총질’에 앞장섬으로써, 그후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경민 구술).

소년단 출신자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고 처참하게 학살당한 사실 문제를 둘러싼 진실 규명에 참여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2004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증’을 수여받고 월 6만원의 ‘참전유공자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들은 당시 청소년으로서 생존의 동기로 인하여 본의와는 무관하게 가해행위⁴⁵⁾에 가담하도록 강요됨으로써 크게 보면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속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교동 사회를 특징짓는 가시적인 변화 중 하나는 1동 1교회⁴⁶⁾를 갖게 된 것이다. 2007년 현재 3천 여명 밖에 되지 않는 교동 인구에 13개리 중 읍내리를 제외한 12개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교동선교100년사』에서는 교동이 강화도에 버금갈 정도로 기독교, 특히 감리교의 선교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1899년 기독교가 선교된 이래⁴⁷⁾로 110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교동 기독교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1899년 설립된 ‘교동교회’와 1949년 설립된 ‘난정교회’를 제외한 10개 교회는 모두 전쟁 과정이나 그 이후 설립되었다. 현재 대룡리의 교동중앙교회(1952년 설립)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고 유독 대룡리 교회만이 100명이 넘는 교인 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 교회는 바로 월남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다.⁴⁸⁾ 다시 말해 황해도 연백군 등지의 월남인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대룡리였고, 피난민 연락사무소가 있던 곳도 바로 대룡리였다. 또한 연백 월남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젊은 남성들은 연안 특공대원, 대한청년단원, 청소년들은 소년단원, 종교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민들과 융화되어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뺏’듯이 토착 교동주민들의 전통적 관계를 흔들었다.

45) 2007년 한국전쟁 당시 강화지역 집단학살 사건조사에서 직접적인 가해자를 보면 356명 피해자 중 소년단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42명(11.8%)나 된다. 김귀옥, 앞의 논문(2007), 29쪽.

46) 교동지역 교회연합사(위음), 『교동선교100년사』(교동지역 교회연합사, 1999), 44쪽.

47) 위의 책, 69쪽.

48) 위의 책, 250쪽.

V. 맺음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교동의 위상은 강화군의 부속 섬 중 하나로서, 소위 휴전선 직하의 황해도에 연접한 ‘접적(接敵)지구’로 변모하면서 몰역사적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교동의 공간적 구성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과거 10여개가 되던 포구를 통하여 외부 세계로 향해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 두 개 통로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닫힌 지역이 되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면소재지의 변화이다.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전통적 권력의 중앙이었던 읍내리가 면소재지의 지위를 내주고, 교동 교동의 결절지인 대룡리가 새로운 교동의 중심지로 변화된 것이다. 과거 읍내리 대지주의 고가는 남아 있으나 주인은 바뀌어 있고, 교동읍성만이 과거 읍내리의 역사적 자취를 말해주고 있다.

<그림 7> 철책으로 둘러싸인 인사리 포구



대룡리 면소재지 사람들은 대개 반농 반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개 대룡리 사람들은 주변 농촌 마을 사람들을 ‘촌사람이라서 어둡다’고 말하고, 주변 지역 사람들은 대룡리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이라 야박하다’고 말한다(봉철 구술). 또한 교동의 12개의 교회는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으니 설립 당시부터 월남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대룡리의 교

회와 다른 11개의 교회들 간에는 종종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한 거리감이 과연 도시/농촌적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만 하는 것일까? 그 저변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좌우 대결구도, 또는 학살과 피학살을 둘러싼 피해의식, 황해도 연백 월남인과 교동 원주민들의 잠재화된 갈등, 반공과 비반공의 잠재적 갈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교동은 앞에서 보았듯이 읍내리의 남산포와 월선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가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에 따라 과거의 번창했던 포구들이 한국전쟁 이후 막히게 됨에 따라 바닷가의 마을들이 철거되거나 황폐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인사리이다. 과거 인사리는 인천과 연백군, 강화, 김포, 서울 등을 잇는 주요 거점이어서 젊은이들로 흥청거렸고, 그 중심 중 하나가 해방 직후 인사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협성회이다. 협성회 역시 한국전쟁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정전 후 교동 사회는 섬 아닌 섬으로, 섬 속의 수용소와 같은 곳으로 변모했다. 마치 밖에서 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방, 즉 감옥과 유사한 곳이 되었다. 서한리의 말탄포나 동산리의 죽산포, 봉소리의 호두포 등, 10여개에 달했던 포구는 나루의 기능을 상실했다. 불음도⁴⁹⁾에서 교동 고구리로 시집온 명희는 고향 불음도를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이 꿈만 같다(명희 구술)고 한다. 심지어 인사리에서 대룡리까지 방문하면서도 헌병의 검사를 받으면서도 불편한 지도 모를 만큼 불편이 일상화되었다(경민 구술). 교동 내 마을 간의 소식을 요즘처럼 접하게 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사라진 수세 때문에 과거에는 마을간 말다툼이 종종 있었으나, 그런 일만 아니면 다른 마을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여겨 왔다.

하나의 섬이 대다수가 친인척으로 얽혀 있는 섬으로서는 극단적으로 친일을 했거나 전시 학살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섬을 떠났다. 물론 월북을 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적 성격이 뚜렷했거나 친북적 부역을 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도 섬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손가락총질’로 불리는 과거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은 하지만 용서하지 않은 채, 침묵하면서 마을의 경계, 개인들간의 경계를 심어왔다.

교동도 공업화로 주도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1970년대 초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혜택으로 전력을 받게 되면서 새마을운동과 토지개간사업에 박차가 가해져 옥토를 가진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야말로 근대화와 경제성장으로 반공을 하겠다는 전략이 적절하게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과거 요시찰인으로 묶여 있었던 부역자나 월북, 또는 납북자 유가족들에게 해당되

49) 불음도는 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섬이다.

었던 연좌제가 사라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장 업무를 맡아보았거나 지역에 대해 널리 알고 있는 신뢰받는 사람들이 해줬던 업무 가운데 하나는 요시찰인 감시와 보고이다(인장 구술, 유현 구술). 아마도 1987년 이후에나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도 교동 섬으로 이출입되던 편지에 대해 이루어진 경찰측의 검열제도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교동은 개성을 지척에 두고 있으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로 한반도에 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는 너무도 늦다. 과거 새로운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교동은 21세기 세계화의 시계에서 거리를 둔 채, 아직도 20세기 냉전의 시계에 따라 살고 있다. 생체화된 반공이데올로기는 교동의 공간 구성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다. 세계적 탈냉전의 시간 속에서 교동 주민이 살게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냉전 해체와 화해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8240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역음), 『8240』. 서울: 8240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 2004.
-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 강화군 기획감사실, 『제46회 강화군통계연보』. 인천: 강화군청, 2006.
- 교동지역 교회연합사(역음), 『교동선교100년사』. 인천: 교동지역 교회연합사, 1999.
- 교동초등학교100년사편집위원회(역음), 『교동초등학교백년사』. 인천: 교동초등학교총동창회, 2006.
- 교동향교지편찬위원회, 『교동향교지』. 인천: 교동향교, 1987.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2003.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1년사』. 서울: 국방부, 1952.
- 국회사무처, 『국회입시회의속기록』 제5회 제54호. 서울: 국회사무처, 1949.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1997]).
- 김귀옥, 「잃어버린 또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46호(2000), 30-53쪽.
- 김귀옥, 「전쟁과 공간, 인간의 사회학적 만남: 속초 월남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필동·지승중(외), 『한국사회사 연구』. 서울: 나남출판, 2003.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 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 로], 『경제와 사회』 통권 71호, 2006, 40~71쪽.
- 김귀옥, 『한국전쟁과 강화도, 고통의 기록: 강화지역 한국전쟁 피해자 조사 실태보고서』. 한성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전쟁과평화연구소, 2007.
- 박찬승, 「20세기 전반 동성마을 영보의 정치사회적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 2003, 127~175쪽.
- 박찬승, 「20세기 전반 예산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7권 1호, 2004, 233~295쪽.
- 송남헌, 『해방3년사(I)』. 서울: 까치, 1985.
- 이승억, 「8·15 후 남한에서의 금융조합 재편과정(1945~1958)」. 한양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용기,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경기도의 한 ‘모스크바’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6호, 2001, 11~55쪽.
- 재인교동면민회(엮음), 『교동향토지』. 인천: 재인교동면민회, 1995.
- 정근식, 「한국전쟁과 지방사회의 갈등」.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정근식, 「한국전쟁과 지역연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쟁과평화연구소 제1회 콜로키움 발표문, 2005.
- 조성일, 「1920년대 민족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당·야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조이현,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기록보존』 12호, 1999, 225~232쪽.
- 조희연(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읽는책, 2004.
-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 유격대 교전지역에서의 학살」. 『제노사이드연구』 창간호, 2007, 155~208쪽.
- 표인주(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서울: 한울, 2003.
- 황규열, 『교동사』. 인천: 교동문화연구원, 1995.
- 황인병(엮음), 『교동군읍지, 광무 3년 5월(1899)』. 인천: 출판사 미상, 1988.
- Kim, Gwi-Ok, “Regional Korean War and Oral History Research.”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9 No. 2, 2006.
- Yoon, Taek-Lim, “Koreans’ stories about themselves: an ethnographic history of Hermit Pond Village in South Kore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92.

국 문 요 약

이 글은 분단과 건국, 전쟁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공업화가 전통 사회를 변모시켰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60, 70년대의 공업화에 앞서 전쟁이 전통 사회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서울과는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휴전선 접경지대역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을 여러 차례 현지조사하였다. 구술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건국과 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지정학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지역 권력관계의 변화의 결과였다.

한국전쟁 시기 교동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좌우 대결과 학살 사건, 수많은 월남인과 월북인 등이 발생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교동은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열린 공간에서, 섬이 철책과 반공으로 봉쇄당한 닫힌 공간으로 변모되었고, 또한 전통적 권력이 해체되면서 면소재지가 이동하게 되었다. 21세기 교동에 탈냉전의 훈풍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책이 걷히고, 바다가 열려야 한다. 세계적 탈냉전의 시간 속에서 교동 주민이 살게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냉전 해체와 화해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한다.

● 투고일 : 2008. 1. 10.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분단(Korean Division), 건국(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한국전쟁(Korean War), 강화군 교동(Gyodong-myeon, Ganghwa-gun), 지정학적 변화(geological change), 구술사 방법론(oral history methodology), 현지조사(fieldwork).